남성의 내의류 구매 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 연구

- 20~60대 남성을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Men's Innerwear Purchasing behavior and Preference

- For Men Aged between 20's and 60's -

전주대학교 전통패션문화전공
조교수 최 진 희
조교수 박 현 정

Dept. of Traditional Fashion Culture, Jeonju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i, Jin-Hee
Assistant Professor : Park, Hyun-Jung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내용
Ⅳ. 연구결과 및 고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and offer useful information on innerwear industry through an analysis of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and preference of their between the 20's and 60's. From 310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308 with usable data were coded for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frequency and chi-square test), by using SPSSWIN 10.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innerwear for men in their 20's should be developed in an attempt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improving functions as an outwear such as impact absorption and protection articulation required for outdoor activities such as mountain climbing and in-line skating, rather than the function of thermal insulatio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that improves the hygroscopicity and rapid dryness is needed. For men in their 30's and 40's, the results suggest that innerwear should be designed as thinly as possible without compromising the silhouette of the outwear. For those in their 50's and 60's, it is

Corresponding Author: Jin-Hee Choi, Department of Traditional Fashion Culture, Jeonju University, 3Ga 1200 Hyoja-dong, Jeonju 560-759 Korea Tel: 82-63-220-2898 Fax: 82-63-220-2736 E-mail: picurry@hanmail.net

recommended to intensify the aspects of health and hygiene of the innerwear,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of thermal insulation.

Given that a large number of women purchase men's innerwear for their partner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designs and marketing strategy specifically tailored to women's purchasing power.

주제어(Key Words): 내의(innerwear), 선호도(preference), 구매행동(purchasing behavior)

I.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은 의류제품의 고급화·전문화·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니트웨어는 유연성, 신축성, 드레이프성과 같은 독특한 특성으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옥희, 김경희, 최미현, 2002). 또한 의류의 세계적인 캐쥬얼화 경향으로 기능성과 패션성을 모두 갖춘 의류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니트웨어가 고부가가치의 패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니트웨어가 스웨터나 내의류, 양말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포멀웨어(Formal wear), 스포츠웨어(Sports wear) 등 아웃웨어(Outwear)까지 확산되었다(김경희, 1994).

니트웨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니트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니트웨어 디자인 및 변천을 중심으로 한 연구(신혜원, 2001; 전현옥, 2002)와 우븐과 달리 신축성이 있는 니트의 특성을 고려한 니트 패턴 분석에 대한 연구(윤혜준, 2001; 천종숙, 허지혜, 1998)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외의류에 한정되거나 특정 연령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니트웨어 중에서 다른 아이템에 비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장시간 착용하고 보유수가 많으며 지속적인 구매를 하는 아이템인 내의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의류와 관련된 연구(정혜원, 2004; 나영주, 정혜원, 1998; 유화숙, 허윤숙, 김은애, 1996)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 내의류이거나 소재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만 일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내의류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소비자들의 내의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외부적으로는 중국, 동남 아시아 국가와 같은 후발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내의용 니트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사실상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내의류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지어 주기 위해서 내의용 니트제품과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남성 소비자에 구매행동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60대 남성을 대상으로 니트 내의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입 및 보유 실태, 소재 및 디자인 선호도를 연령별로 조사·분석하여 니트 내의업체의 상품기획 및 타겟 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내의(under wear)는 외의(outer wear)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복의 최내층에 착용되어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제품으로서 신체 내에서 분비되는 땀, 피지 등을 흡수하는 한편 신체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아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는 기능,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 보온의 기능 등의 목적으로 착용되는 의류제품으로서 활동성, 기능성, 쾌적성 등이 강조되며 직물보다는 주로 니트 소재의 제품이 주종을 이룬다.

내의는 겉에 보이지 않으며, 피부와 접촉하므로 세탁횟수가 많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속상상 다른 의복에 비하여 비내구재에 속하며, 구입과정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비교적 적게 들이는 저관여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세희, 이은영, 2001). 이와 같은 이유로 내의류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

은 편이다. 김세희, 이은영(2001)은 20~3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내의류 구매 성향에 따라 세분화한 집단에 따른 내의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지각 및 속성을 평가하여 여러 브랜드의 속성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남성은 소극적 무관심 구매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정혜원, 김구자(2002)는 60세 이상의 노년 여성은 내의류 구매시 실용성과 경제성, 착용감을 가장 중요시하며 심미성보다는 품위와 정숙성을 중요시하므로 노년 여성의 내의는 화려한 디자인 보다 품질과 기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혜원(2004)은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구입, 착용, 불만족 및 관리의 내의 소비 행동에 관해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고, 고학력자, 고수입자일수록 내의 구매량이 많았으며, 내의 구매 요인으로는 쾌적성, 경제성과 착용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내의 착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내의 소재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손진훈(1988)은 촉감에 의해 유발되는 내의류 직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심리적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중요한 감각요인은 '매끄러움', '부드러움', '섹시함' 등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나영주, 정혜원(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철 상의 내의는 가볍고 오톨도톨하며 보송보송한 재료로 밀착감이 크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내의 구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에만 국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0~60대 남성을 대상으로 내의의 구매행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소재에 국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색상, 무늬, 네크라인 등 디자인에 관한 특성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문제

첫째, 20~60대 남성의 내의 구매, 보유, 착용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20~60대 남성의 내의 색상, 무늬, 디테일 등에 대한 선호 디자인을 분석한다.

셋째, 연령에 따른 내의 착용 및 선호 디자인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사항, 구입 및 보유실태, 계절별 착용실태의 각 항목은 선행연구(정혜원, 2004)와 디자인 선호도 항목은 선행연구(홍병숙, 이은진, 김계연, 2002)를 참고하고 본 연구에 맞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사항으로 연령, 거주지, 직업, 소득 등의 6문항, 둘째 구입 및 보유실태 관련 문항은 구입주체 및 장소, 구입시 고려요인, 아이템별 보유수 등의 7문항, 셋째, 계절별 착용실태 관련 사항으로 착용빈도, 착용 및 미착용 사유 등의 12문항, 넷째, 디자인 선호도 관련 사항으로 색상, 무늬, 디테일(소매, 네크라인 등) 디자인 등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2004년 6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60대 남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은 행정단위 크기에 따른 구매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군·면·읍이 포함된 전라도 지역 49.7%(153명), 서울 및 수도권 50.3%(155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4년 7월~9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은 응답 내용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 32.8%(101명), 30~40대 34.7%(107명), 50-60대 32.5%(100명)이었고, 결혼여부는 미혼 38.4%(118명), 기혼 61.6%(189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 37.5%(115명), 대학 및 대학원생 16.6%(51명), 공무원 12.7%(39명), 농업 8.1%(25명), 자영업 7.5%(23명), 기타 6.5%(20명)의 순이었다. 소득수준은 100~200만원 35.1%(107명), 200~300만원 29.8%(91명), 300~400만

원 18.7%(57명), 100만원 미만 10.2%(31명)순이었고, 학력수준은 대졸 54.6% (166명), 고졸 35.9%(109명), 중졸 6.6%(20명), 대학원 이상 2.0%(6명), 중졸 미만 1.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Ver. 10.1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χ^2-test 등을 실시하여 내의에 대한 구매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구입 및 보유실태

본 연구에서 내의 종류는 런닝셔츠(민소매, 반팔), 팬티(삼각, 트렁크, 밀착사각)를 기본 내의, 7부·9부·보온 에어메리와 같이 보온성이 강조된 것은 보온 내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의를 구입하는 주체는 배우자가 구입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30.2%, 다른 가족 18.8% 등의 순이었다. 30-40대와 50-60대의 구입 주체는 배우자, 본인, 다른 가족의 순이었으며 20대는 다른 가족 44.6%, 본인 42.6%, 등의 순으로 연령대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20대의 경우 다른 가족의 구입비율이 높은 이유는 미혼이거나 어머니 등이 대신 구입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의 구매 장소는 대형 할인점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 대리점 33.8%, 백화점 16.0%의 순이었다. TV홈쇼핑과 인터넷 구입은 각각 5.2%, 3.2%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미정, 황선진(1998), 정혜원(2004)의 연구에서 여성용 내의 구매 장소와 거의 일치하였다. 내의 구매 장소가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유사한 이유는 〈표 1〉에서와 같이 20대를 제외하면 남성 내의는 배우자나 친구 등 여성이 구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보온 내의 보유 수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7부 내의 보유 비율은 50-60대 55.8%, 30-40대 39.2%, 20대 21.2%로 나타났고, 9부 내의는 50-60대 71.3%, 30-40대 36.2%, 20대 24.0%, 보온 에어메리는 50-60

〈표 1〉 연령대별 내의 구입 주체

단위: %(명)

구분 \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구입주체	본 인	42.6(43)	30.8(33)	17.0(17)	30.2(93)	113.789***
	배 우 자	11.9(12)	57.0(61)	79.0(79)	49.4(152)	
	다른 가족	44.6(45)	10.3(11)	2.0(2)	18.8(58)	
	기 타	1.0(1)	1.9(2)	2.0(2)	1.6(5)	
	합 계	100(101)	100(107)	100(100)	100(308)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2〉 연령대별 내의 구입 장소

단위: %(명)

구입장소 / 연령	백 화 점	전문 대리점	대형 할인점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통신판매	노점 판매상	모 름	기 타	전체합계
20대	11.9(12)	41.6(42)	32.7(33)	5.0(5)	6.9(7)	1.0(1)	9.9(10)	15.8(16)	2.0(2)	32.8(101)
30-40대	26.2(28)	36.4(39)	43.9(47)	3.7(4)	7.5(8)	0.9(1)	3.7(4)	7.5(8)	1.9(2)	34.7(107)
50-60대	13(13)	23.0(23)	46.0(46)	1.0(1)	1.0(1)	3.0(3)	15.0(15)	10.0(10)	5.0(5)	32.5(100)
전 체	16(53)	33.8(104)	40.9(126)	3.2(10)	5.2(16)	1.6(5)	9.4(29)	11.0(34)	2.9(9)	100.0(308)

〈표 3〉 연령대별 보온 내의 보유 수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7부 내의	없음	78.8(78)	70.8(75)	44.2(42)	65.0(195)	31.484***
	1-2벌	14.1(14)	14.2(15)	26.3(25)	18.0(54)	
	3-4벌	4.0(4)	7.5(8)	20.0(19)	10.3(31)	
	5벌 이상	3.0(3)	7.5(8)	9.5(9)	6.7(20)	
	합 계	100(99)	100(106)	100(95)	100(300)	
9부 내의	없음	76.0(76)	63.8(67)	28.7(27)	56.9(170)	60.610***
	1-2벌	18.0(18)	26.7(28)	33.0(31)	25.8(77)	
	3-4벌	3.0(3)	7.6(8)	29.8(28)	13.0(39)	
	5벌 이상	3.0(3)	1.9(2)	8.5(8)	4.3(13)	
	합 계	100(100)	100(105)	100(94)	100(299)	
보온 에어메리	없음	83.8(83)	74.5(79)	29.9(29)	63.2(91)	76.748***
	1-2벌	15.2(15)	18.9(20)	47.4(46)	26.8(81)	
	3-4벌	0(0)	4.7(5)	20.6(20)	8.3(25)	
	5벌 이상	1.0(1)	1.9(2)	2.1(2)	1.7(5)	
	합 계	100(99)	100(106)	100(97)	100(302)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대 70.1%, 30-40대 25.5%, 20대 16.2%의 순이었다. 보온을 목적으로 주로 착용하는 7부, 9부, 보온 에어메리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민소매 런닝셔츠 보유 비율은 50-60대 92.7%, 30-40대 83.2%, 20대 81.0%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소매 런닝셔츠는 50-60대 85.1%, 20대 62.2%, 30-40대 43.8%의 순이었다.

삼각 팬티 보유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1-5벌 55.0%, 6-10벌 19.0%, 30-40대는 1-5벌 39.3%, 6-10벌 29.9%, 50-60대는 1-5벌 64.6%, 6-10벌 5.2% 등의 순으로 연령간의 보유 수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런닝셔츠는 1-2벌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팬티는 1-5벌이 가장 많고 6벌 이상 보유하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30-40대는 6벌 이상 보유하는 비율이 1-5벌보다도 높은 것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 세탁하지 않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세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트렁크 팬티 보유 비율은 삼각팬티에 비해 낮지만 전체 조사대상자의 79%가 보유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8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유량이 많은 트렁크 팬티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밀착 사각 팬티(드로즈 또는 즈로즈) 보유 비율은 20대 42.0%, 50-60대 41.6%, 30-40대 29.0%의 순이었다. 과거 남성용 팬티 종류는 삼각 팬티와 트렁크 팬티로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국내 주요 내의 생산업체에서 니트로 제작하여 신축성이 좋은 밀착 사각 팬티를 판매하고 있으며, 20대와 50-60대에서 40%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다.

도시와 군·면·읍 행정단위에 따른 내의 구입 및 보유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절별 착용실태

보온 내의는 겨울, 봄·가을로 나누어 내의 착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내의 착용 이유와 혹은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의를 착용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겨울철 보온내의 착용 여부는 '착용하지 않는다' 51.0%, '추운 날에만 착용한다' 29.2%, '항상 착용한

<표 4> 연령대별 기본내의(런닝셔츠 및 팬티) 보유 수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런닝셔츠	민소매 런닝셔츠	없음	19.0(19)	16.8(18)	7.3(7)	14.5(44)	38.084***
		1-2벌	34.0(34)	20.6(22)	43.8(42)	32.3(98)	
		3-4벌	30.0(30)	20.6(22)	35.4(34)	28.4(86)	
		5벌 이상	17.0(17)	42.1(45)	13.5(13)	24.8(75)	
		합 계	100(100)	100(107)	100(96)	100(303)	
	반소매 런닝셔츠	없음	37.8(37)	56.2(59)	14.9(14)	37.0(110)	44.299***
		1-2벌	31.6(31)	21.9(23)	28.7(27)	27.3(81)	
		3-4벌	23.5(23)	12.4(13)	36.2(34)	23.6(70)	
		5벌 이상	7.1(7)	9.5(10)	20.2(19)	12.1(36)	
		합 계	100(98)	100(105)	100(94)	100(297)	
팬 티	삼각 팬티	없음	17.0(17)	21.5(23)	29.2(28)	22.4(68)	32.976***
		1-5벌	55.0(55)	39.3(42)	64.6(62)	52.5(159)	
		6-10벌	19.0(19)	29.9(32)	5.2(5)	18.5(56)	
		10벌 이상	9.0(9)	9.3(10)	1.0(1)	6.6(20)	
		합 계	100(100)	100(107)	100(96)	100(303)	
	트렁크 팬티	없음	21.6(21)	29.0(31)	11.5(11)	21.0(63)	10.541
		1-5벌	49.5(48)	41.1(44)	52.1(50)	47.3(142)	
		6-10벌	22.7(22)	22.4(24)	30.2(29)	25.0(75)	
		10벌 이상	6.2(6)	7.5(8)	6.3(6)	6.7(20)	
		합 계	100(97)	100(107)	100(96)	100(300)	
	밀착사각 팬티	없음	58.0(58)	71.0(76)	58.4(52)	62.8(186)	9.290
		1-5벌	36.0(36)	28.0(30)	34.8(31)	32.8(97)	
		6-10벌	5.0(5)	0.9(1)	6.7(6)	4.1(12)	
		10벌 이상	1.0(1)	0(0)	0(0)	0.3(1)	
		합 계	100(100)	100(107)	100(89)	100(296)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다' 19.8%의 순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겨울철 보온 내의 착용 비율은 49.0%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연령대별 착용 비율은 50-60대 83%, 20대 31.7%, 30-40대 33.67%로 나타나 50-60대는 착용하는 비율이 20대와 30-40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연령간의 겨울철 보온 내의 착용 여부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겨울철 보온 내의를 착용하는 응답자(150명)의 경우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74.7%, '야외운동 및 활동 등에만 착용' 12.7%,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6.7% 등의 이유로 보온 내의를 착용하였다. 연령대별 착용 이유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와 30-40대는 '야외운동 및 활동 등에만 착용'이, 50-60대는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연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50-60대는 겨울철에는 내의 착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반면에, 20대와 30-40대는 보온 내의는 기본 내의와는 달리 야외활동 등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겨울철 보온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56명)는 '추위를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32.1%,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18.6% 등의 이유로 보온 내의를 착용하지 않았다. 연령대별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50-60대는 '난방시설이 좋은 곳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가 44.4%, 30-40대는 '추위를 별

<표 5> 연령대별 겨울철 보온 내의 착용 실태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착용여부	항상 착용	7.9(8)	9.3(10)	43.0(43)	19.8(61)	79.740***
	추운 날에만 착용	23.8(24)	24.3(26)	40.0(40)	29.2(90)	
	착용하지 않는다	68.3(69)	66.4(71)	17.0(17)	51.0(157)	
	합 계	100(101)	100(107)	100(100)	100(308)	
착용이유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51.6(16)	66.7(24)	86.7(72)	74.7(112)	29.181**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6.5(2)	11.1(4)	4.8(4)	6.7(10)	
	내의 미착용시 피부트러블(가려움, 발진 등) 생김	12.9(4)	2.8(1)	1.2(1)	4.0(6)	
	신체분비물(땀, 분비물 등) 흡수 및 겉옷오염방지	0(0)	0(0)	1.2(1)	0.7(1)	
	특별한 날(야외운동 및 활동 등)에만 착용	29.0(9)	19.4(7)	3.6(3)	12.7(19)	
	기타	0(0)	0(0)	2.4(2)	1.3(2)	
	합 계	100(31)	100(36)	100(83)	100(150)	
미착용 이유	추위를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25.4(17)	38.0(27)	33.3(6)	32.1(50)	31.247***
	내의를 착용하면 겉옷의 맵시가 나빠져서	19.4(13)	15.5(11)	5.6(1)	16.0(25)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31.3(21)	11.3(8)	0(0)	18.6(29)	
	주위사람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4.5(3)	4.2(3)	0(0)	3.8(6)	
	난방시설이 좋은 곳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	4.5(3)	19.7(14)	44.4(8)	16.0(25)	
	기타	14.9(10)	11.3(8)	16.7(3)	13.5(21)	
	합 계	100(67)	100(71)	100(18)	100(156)	
기본 내의로 대체착용	팬티만 착용	29.0(20)	33.3(24)	23.5(4)	30.4(48)	27.700***
	팬티와 런닝셔츠만 착용	34.8(24)	56.9(41)	59.8(10)	47.5(75)	
	팬티와 런닝셔츠 대신 면 티셔츠 착용	34.8(24)	9.7(7)	5.9(1)	20.3(32)	
	기타	1.4(1)	0(0)	11.8(2)	1.9(3)	
	합 계	100(69)	100(72)	100(17)	100(158)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로 타지 않기 때문에'가 38.0%, 20대는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가 31.3%로 각각 가장 높았다. 20대는 보온보다는 미적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30-40대와 50-60대는 과거에 비해 난방시설이 좋은 곳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내의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온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응답자(156명)는 모든 연령대에서 기본 내의인 팬티와 런닝셔츠만 착용하는 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런닝셔츠 대신 면 티셔츠 착용'도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30-40대와 50-60대는 '팬티만 착용'이 두 번째로 높았다.

봄·가을 보온 내의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7.7%가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50-60대는 착용하는 비율이 57.0%로 높았고 20대와 30-40대는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74.3%, 75.7%로 높게 나타나 50-60대와 20대와 30-40대간의 봄·가을 내의 착용 여부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의 내의 착용 비율이 많아진다는 정혜원 외(2002)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노인은 산열량이 적으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추위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봄·가을 보온 내의를 착용하는 이유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45.8%,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24.3%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봄·가을 보온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추위를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이유로 30-40대와 50-60대는 '겉옷의 맵시가 나빠져서', 20대는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였다. 30-40대와 50-60대는 미적인 측면을

〈표 6〉 연령대별 봄·가을 보온 내의 착용 실태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착용여부	항상 착용	12.9(13)	8.4(9)	16.0(16)	12.3(38)	23.386***
	약간 쌀쌀한 날에만 착용	12.9(13)	15.9(17)	41.0(41)	23.1(71)	
	착용하지 않는다	74.3(75)	75.7(81)	43.0(43)	64.6(199)	
	합 계	100(101)	100(107)	100(100)	100(308)	
착용이유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32.0(8)	44.0(11)	52.6(30)	45.8(49)	14.235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24.0(6)	36.0(9)	19.3(11)	24.3(26)	
	내의 미착용시 피부트러블(가려움, 발진 등) 생김	12.0(3)	4.0(1)	1.8(1)	4.7(5)	
	신체분비물(땀, 분비물 등) 흡수 및 겉옷오염방지	16.0(4)	4.0(1)	3.5(2)	6.5(7)	
	특별한 날(야외운동 및 활동 등)에만 착용	16.0(4)	12.0(3)	22.8(13)	18.7(20)	
	기타	0(0)	0(0)	0(0)	0(0)	
	합 계	100(25)	100(25)	100(57)	100(107)	
미착용 이유	추위를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44.4(32)	51.9(42)	58.1(25)	50.5(99)	24.032**
	내의를 착용하면 겉옷의 맵시가 나빠져서	12.5(9)	19.8(16)	25.6(11)	18.4(36)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18.1(13)	8.6(7)	2.3(1)	10.7(21)	
	주위사람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5.6(4)	7.4(6)	0(0)	5.1(10)	
	기타	19.4(14)	12.3(10)	14.0(6)	15.3(30)	
	합 계	100(72)	100(81)	100(43)	100(196)	
기본 내의로 대체착용	팬티만 착용	42.7(32)	33.3(27)	9.3(4)	31.7(63)	22.203**
	팬티와 런닝셔츠만 착용	29.3(22)	59.3(48)	53.5(23)	46.7(93)	
	팬티와 런닝셔츠 대신 면 티셔츠 착용	26.7(20)	7.4(6)	32.6(14)	20.1(40)	
	기타	1.3(1)	0(0)	4.7(2)	1.5(3)	
	합 계	100(75)	100(81)	100(43)	100(199)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20대는 내의 착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온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내의만 착용하였다. 하지만 착용 종류는 연령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20대는 '팬티만 착용', 30-40대와 50-60대는 '팬티와 런닝셔츠만 착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온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여름철 기본 내의 착용 여부는 '항상 착용한다' 45.0%, '착용하지 않는다' 35.5%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별 착용 여부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30-40가장 높았다. 30-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사회활동에 따라 속이 비치지 않는 옷차림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교적 옷차림이 자유로운 20대에 비해 여름 내의 착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름철 런닝셔츠 착용 이유는 '신체분비물 흡수 및 겉옷 오염 방지' 49.7%,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29.9% 등의 순으로 연령대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름철 런닝셔츠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덥고 답답하기 때문' 75.7%, '겉옷의 맵시가 나빠져서' 10.3% 등의 순으로 연령대별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름철 기본 내의 착용 형태는 '팬티와 런닝셔츠 착용' 72.3%, '팬티만 착용' 14.1% 등의 순이었다. 30-40대와 50-60대는 팬티와 런닝셔츠만 착용하는 비율이 20대에 비해 월등히 높고, 20대는 런닝셔츠 대신 면 티셔츠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디자인 선호도

내의 디자인 선호도는 색상, 무늬, 네크라인 디자인, 소매 디자인, 팬티 디자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내의 색상은 흰색 48.2%, 베이지(살색) 16.6%,

<표 7> 연령대별 여름철 기본내의 착용 실태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착용여부	항상 착용	25.7(26)	57.0(61)	51.5(51)	45.0(138)	34.065***
	가끔 착용	24.8(25)	15.9(17)	18.2(18)	19.5(60)	
	착용하지 않는다	49.5(50)	27.1(29)	30.3(30)	35.5(109)	
	합 계	100(101)	100(107)	100(99)	100(307)	
착용이유	항상 입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17.6(9)	37.7(29)	30.4(21)	29.9(59)	13.249
	내의 미착용시 피부트러블(가려움, 발진 등) 생김	3.9(2)	1.3(1)	8.7(6)	4.6(9)	
	속이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7(8)	16.9(13)	10.1(7)	14.2(28)	
	신체분비물(땀, 분비물 등) 흡수 및 겉옷오염방지	58.8(30)	44.2(34)	49.3(34)	49.7(98)	
	기타	3.9(2)	0(0)	1.4(1)	1.5(3)	
	합 계	100(51)	100(77)	100(69)	100(197)	
미착용 이유	덥고 답답하기 때문	80.8(40)	79.3(23)	64.3(18)	75.7(81)	14.859
	땀이 많지 않아 내의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	4.0(2)	0(0)	7.1(2)	3.7(4)	
	내의를 착용하면 겉옷의 맵시가 나빠져서	0(0)	10.3(3)	28.6(8)	10.3(11)	
	왠지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10.0(5)	3.4(1)	0(0)	5.6(6)	
	기타	6.0(3)	6.9(2)	0(0)	4.7(5)	
	합 계	100(50)	100(29)	100(28)	100(107)	
기본내의 착용형태	팬티만 착용	16.7(8)	9.1(7)	18.2(12)	14.1(27)	33.205***
	팬티와 런닝셔츠만 착용	52.1(25)	83.1(64)	74.2(49)	72.3(138)	
	팬티와 런닝셔츠를 대용 면 티셔츠 착용	31.3(15)	6.5(5)	7.6(5)	13.1(25)	
	기타	0(0)	1.3(1)	0(0)	0.5(1)	
	합 계	100(48)	100(77)	100(66)	100(191)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8> 연령대별 내의 선호 색상 및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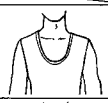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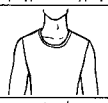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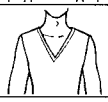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색 상	흰색	44.6(45)	52.8(56)	47.0(47)	48.2(148)	16.257
	베이지	15.8(16)	14.2(15)	20.0(20)	16.6(51)	
	파스텔	6.9(7)	8.5(9)	8.0(8)	7.8(24)	
	회색	10.9(11)	11.3(12)	17.0(17)	13.0(40)	
	검정색	8.9(9)	10.4(11)	4.0(4)	7.8(24)	
	원색(빨강, 파랑 등)	8.9(9)	1.9(2)	3.0(3)	4.6(14)	
	기타	4.0(4)	0.9(1)	1.0(1)	2.0(6)	
	합 계	100(101)	100(106)	100(100)	100(307)	
무 늬	무늬가 전혀 없는 것	42.0(42)	57.5(61)	53.0(53)	51.0(156)	22.444*
	스트라이프 또는 체크무늬	25.0(25)	23.6(25)	22.0(22)	23.5(72)	
	작은 무늬	17.0(17)	11.3(12)	23.0(23)	17.0(52)	
	큰 무늬	7.0(7)	3.8(4)	1.0(1)	3.9(12)	
	캐릭터 무늬	7.0(7)	0.9(1)	1.0(1)	2.9(9)	
	기타	2.0(2)	2.8(3)	0(0)	1.6(5)	
	합 계	100(100)	100(106)	100(100)	100(306)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9> 연령대별 내의 선호 네크라인 및 소매 디자인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네크라인 디자인			25.7(26)	57.5(61)	52.0(52)	45.3(139)	26.193***
			54.5(55)	34.9(37)	36.0(36)	41.7(128)	
			18.8(19)	7.5(8)	12.0(12)	12.7(39)	
		기 타	1.0(1)	0(0)	0(0)	0.3(1)	
		합 계	100(101)	100(106)	100(100)	100(307)	
소매 디자인	겨울용	9부	31.9(30)	38.1(40)	65.0(65)	45.2(135)	24.670***
		7부	68.1(64)	61.9(65)	35.0(35)	54.8(164)	
		합 계	100(94)	100(105)	100(100)	100(299)	
	여름용		37.4(37)	70.8(75)	52.0(52)	53.8(164)	26.708***
			36.4(36)	19.8(21)	22.0(22)	25.9(79)	
			25.3(25)	9.4(10)	25.0(25)	19.7(60)	
		기 타	1.0(1)	0(0)	1.0(1)	0.7(2)	
		합 계	100(99)	100(106)	100(100)	100(305)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함.

회색 13.0%, 파스텔(핑크, 하늘색 등) 등의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흰색과 베이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연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내의 무늬는 모든 연령대에서 '무늬가 전혀 없는 것'과 '스트라이프 또는 체크무늬'를, 50-60대는 '작은 무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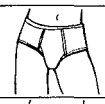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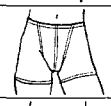
내의 선호 네크라인은 '깊은 라운드형' 45.3%, '얕은 라운드형' 41.7%, 'V자형' 12.7%의 순이었다. 30-40대는 '깊은 라운드형'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20대는 '얕은 라운드형' 선호도가 높아 연령간의 선호 네크라인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20대의 경우 면 티셔츠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겉옷을 착용했을 때 네크라인이 밖으로 보이는 것이 미적인 측면에서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겨울용 보온 내의 소매 디자인은 '7부' 54.8%, '9부' 45.2%의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선호 소매 디자인은 20대와 30-40대는 7부를, 50-60대는 9부를 더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50-60대가 겨울철 내의 착용 이유를 추위와 습관이라고 86.7% 응답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당연한 결과였다.

여름용 런닝셔츠 소매 디자인은 '어깨파임이 큰 민소매 런닝셔츠' 53.8%, '어깨파임이 적은 민소매 런닝셔츠' 25.9%, '반소매 런닝셔츠' 19.7%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선호 여름용 소매 디자인은 30-40대와 50-60대는 어깨파임이 큰 런닝셔츠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50-60대는 반소매 런닝셔츠도 선호하였다.

<표 10> 연령대별 선호 팬티 디자인

단위: %(명)

구분	연령	20대	30-40대	50-60대	전체합계	χ^2-value
팬티 디자인		25.0(25)	37.4(40)	5.1(5)	23.0(70)	46.491***
		14.0(14)	12.1(13)	5.1(5)	10.5(32)	
	 (드로즈)	13.0(13)	6.5(7)	8.2(8)	9.2(28)	
	(트렁크)	48.0(48)	43.9(47)	80.6(79)	57.0(174)	
	기 타	0(0)	0(0)	1.0(10)	0.3(1)	
	합 계	100(100)	100(107)	100(98)	100(305)	

20대는 어깨파임이 크거나 적은 민소매 런닝셔츠를 비슷한 수준으로 선호하였다. 이는 여름철 내의 착용실태에서 런닝셔츠 대신 면 티셔츠 착용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남방 등 겉옷 밖으로 보이도록 착용함으로써 내의와 면 티셔츠를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팬티 디자인은 '사각팬티(트렁크)' 57.0%, '삼각팬티' 23.0%, '밀착 삼각팬티' 10.5%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선호 팬티 디자인은 20대와 30-40대는 사각팬티와 삼각 팬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50-60대는 사각팬티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아 연령간의 선호 패턴 디자인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보다는 착용할 때 편안하고 여유가 많은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20~60대에 남성의 내의류 구매 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대 남성의 내의 구입행동 특성은 구입 주체가 본인 이외의 다른 가족이 주로 담당하였다. 보온 내의 보유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착용 이유는 추위를 타거나 야외활동 등 특별한 경우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부위별 디자인에서 네크라인은 파임이 적은 U자형, 소매는 겨울용은 7부, 여름용은 파임이 적은 민소매, 팬티는 사각과 삼각팬티를 선호하였다. 분석결과 20대 남성을 위한 내의류는 기존의 보온을 위한 목적보다는 등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야외 활동 시에 필요한 충격 흡수, 관절 보호 같은 겉옷의 기능성을 보완한 제품과 흡습성 및 속건성 등 기능성이 함유된 소재를 사용한 내의류 개발이 필요하였다. 또한 모든 계절에 런닝셔츠 대신 면 티셔츠를 착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기 때문에 내의와 겉옷으로도 모두 착용이 가능한 미적인 측면이 고려된 제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0-40대 남성의 내의류 구입행동 특성은 구입주체의 대부분이 배우자였으며 모든 계절에서 겉옷의 맵시가 나빠지기 때문에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여름철에는 다만 속이 비치지 않도록 런닝셔츠를 착용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부위별 디자인에서 네크라인은 파임이 깊은 U자형, 소매는 겨울용은 7부를, 여름용은 파임이 깊은 것, 팬티는 20대와 마찬가지로 사각과 삼각팬티를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세탁하기 위해 팬티의 보유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분석결과 30-40대를 위해서는 내의류를 착용한 후에 겉옷의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온 내의류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며 여름에는 통기성과 흡습성 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었다.

50-60대 남성의 내의류 구입행동 특성은 구입주체는 30-40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보온 내의류와 반소매 런닝셔츠 보유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겨울철과 봄·가을용 내의는 착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그 이유는 습관적으로 항상 입어왔기 때문이었으며, 여름철에 기본 내의 착용 이유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신체 분비물 흡수 및 겉옷 오염 방지를 위해서가 가장 높았다.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에서 네크라인은 U자형과 레이스가 있는 U자형, 소매 디자인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겨울용은 9부, 여름용은 민소매와 반소매 런닝셔츠를 선호하였다. 분석결과 50-60대를 기존의 보온을 위한 목적과 건강과 위생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천연 소재를 이용하거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특수 가공처리 된 제품 개발이 필요하였다.

남성 내의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내의 20-60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내의를 구입하는 주체가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의용 니트 제품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 고객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남성 내의 판매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점, 전문대리점, 백화점은 물론이며, 최근 들어 지속적인 판매증가를 보이는 인터넷 쇼핑과 TV홈쇼핑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한 판매가 필요하다.

둘째, 연령에 따라 내의를 착용하는 이유나, 보유수, 디자인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의 브랜드의 타켓을 현행 남성용, 여성용, 아동용에서 좀 더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각 연령대에 적합한 소재, 기능,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의의 소재 측면과 경제상태, 거주형태 등 다른 인구통계 변인에 의한 분석은 제외되어 남성의 모든 구매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 이순홍(1994). 니트웨어의 소비자성향 실태 및 업체에 관한 조사 연구. 복식, 23, 131-150.

김세희, 이은영(2001). 내의류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따른 시장 세분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73-88.

나영주, 정혜원(1998). 여름철 남녀 내의의 태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36(2), 186-195.

손진훈, 박현영, 이임갑, 최상섭, 강대임(1998). 내의 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질감 감성과의 관계. 한국감성과학회지, 1(2), 35-42.

신혜원(2001).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21C 기계 니트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화숙, 허윤숙, 김은애(1996). 편성물의 섬유의 종류, 실의 굵기 및 니트타입에 따른 투습완충능력. 한국의류학회지, 20(1), 228-238.

이옥희, 김경희, 최미현(2002). 쇼핑성향에 따른 니트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4), 364-376.

정혜원(2004). 여성의 내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3/4), 422-431.

정혜원, 김구자(2002). 노년여성의 내의 구매 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 광역시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5), 737-747.

천종숙, 허지혜(1998). 니트 상의 패턴의 맞음새 평가방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4), 482-492.

한성지, 김문숙(2001). 니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의 의사결정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9(2), 223-234.

홍병숙, 이은진, 김계연(2002). 20-30대 여성의 니트웨어 구매행동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7), 1055-1065.

(2004년 12월 16일 접수, 2005년 4월 12일 채택)